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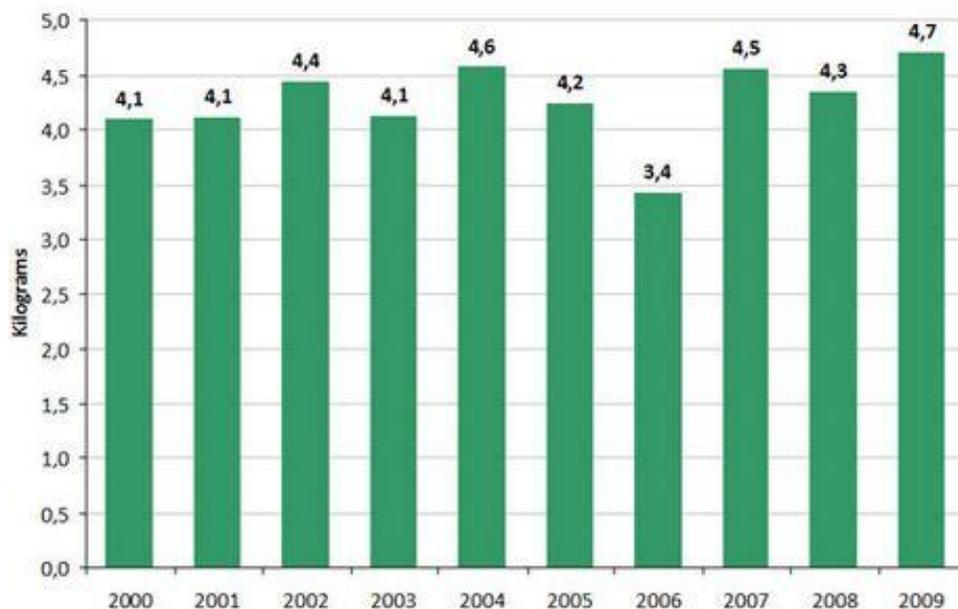
## 프랑스: 지난 10년간 콜리플라워 (꽃양배추) 소비량 증가

2000년 이후 프랑스인 1인당 콜리플라워의 평균 소비량이 4.1 kg ~ 4.7kg 사이로 집계되었다. Eurostat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프랑스 1인당 콜리플라워의 소비량은 2008년에 비해 9.3%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.

또한 2009년은 지난 10년 중 콜리플라워의 소비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되며, 이는 2008년 4.3 kg 소비에 비해 9.3% 증가, 1인당 4.3 kg의 소비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.

한편 프랑스의 콜리플라워 연간 소비량은 일정한 트렌드 없이 불규칙적인 소비 동향을 보이고 있다. 콜리플라워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한 2006년 (1인당 소비량 약 3.4 kg)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에는 1인당 평균 4.1 kg ~ 4.7kg의 콜리플라워를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.

<2000년 ~ 2009년 프랑스 1인당 콜리플라워 소비량>



출처: Freshplaza

Issue date: 2011/9/27